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영종캠페인



신나는 놀이터, 즐거은 법회

요즘 어린이법회, 정말 재미있다. 축구교실·비보이댄스 감상·마술교실을 비롯한 프로그램들과 공부방·논술교실·영어법회 등 교육 콘텐츠도 너무랄 데 없다. 따라서 어린이법회 참여도도 꾸준한 증가추세다. 하지만 청소년법회로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청소년법회 자체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 2006년 조계종 포교원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법회가 전국 240여 곳이라면 청소년법회는 80여 곳이다. 그나마도 5~10명 나오는 사찰이 상당수다. 이대로 가면 청소년법회, 정말 위험하다.

내 아이 불자 만들기 사찰의 역할

#1 나영이(16)는 요즘 고민이다. 집 주변에 다닐만한 사찰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불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교회가 많아 요즘은 그쪽으로 가볼까 고민 중이다.

#2 대학생 윤선아(24)씨는 청소년법회 지도를 하려다 좌절했다. 운씨가 다니는 사찰에 청소년불자 수가 감소, 청소년법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법회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교원이나(사)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도후·이하 파라미터) 같은 기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청소년법회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청소년법회의 문제는 크게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 사찰을 찾는 청소년들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소년불자 문제는 불교계가 인재불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파생된 결과가 바로 청소년불자 수 감소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청소년법회를 이끌어오던 인재 부족 문제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어린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사찰로 데려올 수 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해진다. 어린이법회보다 청소년법회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아이들이 사찰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 빠져있는 청소년법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사찰을 찾도록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사찰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 아이들은 알찬 것을 원한다

청소년법회는 재미있는 것이 우선이다. 온갖 자극적인 놀이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아이들은 특히 지루한 것에 약하다. 하지만 마냥 ‘노는 것’만 주가 되면 아이들이 불안해한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의 경우, 이 점을 철저히 고려해 재미있어야 한다는 청소년법회는 아이들의 방향을 줄여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어린이법회처럼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청소년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기 마련이다.

군포 정각사(주지 정업)는 편안함으로 승부하고 있다. 정각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자모회와 청소년법회의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학을 전공한 지도법사 정업 스님과 자모들이 면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폭넓게 대화한다. 주지 정업 스님의 원력도 보탬이 아니다. 사찰 아이들 일이라던 애김없이 지원한다. 영화관람, 야외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청소년법회 성공의 관건이다.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은 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윤산 스님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찰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다잡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법회를 이끌어간다.

윤산 스님은 “아이들을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것이 사찰의 미덕인 것 같다”며 “단편적인 교리전달보다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 애쓴다”고 귀띔했다.

원하는지 파악해 놀이와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회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아이들은 편안한 것을 원한다

청소년법회가 어린이법회와 다른 점은 아이들이 ‘혼돈기’에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법회가 철저하게 재미있어야 한다면 청소년법회는 아이들의 방향을 줄여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어린이법회처럼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청소년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기 마련이다.

군포 정각사(주지 정업)는 편안함으로 승부하고 있다. 정각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자모회와 청소년법회의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학을 전공한 지도법사 정업 스님과 자모들이 면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폭넓게 대화한다. 주지 정업 스님의 원력도 보탬이 아니다. 사찰 아이들 일이라던 애김없이 지원한다. 영화관람, 야외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청소년법회 성공의 관건이다.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은 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윤산 스님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찰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다잡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법회를 이끌어간다.

윤산 스님은 “아이들을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것이 사찰의 미덕인 것 같다”며 “단편적인 교리전달보다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 애쓴다”고 귀띔했다.

□ 결국은 정성과 지원이다

청소년법회가 잘 되기 위해 결국 회자되는 것은 사찰 주지의 정성과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이다. 원력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청소년법회, 인재불사에 대해 논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과 지원이다. 각 사찰이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종단의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불교가 너무 세속화되거나 타종교를 모방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결국 편안함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불교문화의 고유성이 적절하게 응용되어 참선·명상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또 다른 콘텐츠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파라미터에서도 앞으로 청소년법회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한근 사무국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자 교육 등을 확대하여 법회 자체가 청소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사찰, 청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찰 만들기에 아직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법회를 잘 꾸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실현’ 뿐이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와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게 바랍시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화,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양촌 법계사 신증명화(동)

양촌 법계사 삼세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연승.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 과 <바로보인 선문연승>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서울 법회는 11월 4일(日) 도봉에서 열립니다.

- * 서울선원 ☎ 02-3494-0122 (매월 첫째 일요일) 선가귀감 / 11월 4일 오전 11시
- * 광주선원 ☎ 062-944-4088 (매월 셋째 일요일) 선문연승 / 10월 21일 오후 2시
- * 부산선원 ☎ 051-545-2460 (매월 넷째 일요일) 반야심경 / 10월 28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형 의욕기 05-0626호 인증

전자파 장애실험됨 전자파 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원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C 이상의 열과 생광선이 발생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썩음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C~80°C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오늘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는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약돌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션건강베개, 헬스방석, 요추 경추베개, 족온기, 팔찌, 목걸이, 배개 등들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종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약돌(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